

# 人文科學 研究 및 教育에 관한 方案

—大學에서의 政治教育 問題와 관련하여—

李 仁 浩

(西洋史學科 副教授)

## 目 次

- |                                |                                  |
|--------------------------------|----------------------------------|
| I. 人文學 研究 및 教育에 대한 새로운 검토의 필요성 | 나. 人文學 研究와 教育의 필요성 및 성격에 대한 認識不足 |
| II. 人文學 및 人文教育의 特性             | 다. 人文教育 內容의 貧困化                  |
| 가. 傳統的 人文教育 및 人文學              | 타. 人文教育 및 人文學 研究에 대한 評價基準의 不在    |
| 나. 人文學의 特性과 限界                 | 마. 그밖의 문제들                       |
| 다. 人文學의 方法                     | IV. 人文學 研究 및 人文教育의 改善과 變化를 위한 議提 |
| 라. 人文教育과 政治教育                  |                                  |
| III. 人文學 研究와 人文教育의 現況          |                                  |
| 가. 大學 및 教育 전반의 문제              |                                  |

德을 닦지 못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지 못하며, 義롭다고 들어 아는 것을 따름 줄을 모르며, 착하지 않은 것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나를 근심스럽게 한다. —孔子—

教育이 바른 길을 따라 구상되고 自然的 才能이 한껏 개발되며 道德의 원칙에 따라 人格이 형성되기만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정치 권력의 핵심에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자 트—

## I. 人文科學 研究 및 教育에 대한 새로운 檢討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人文教育이나 人文學 研究의 실태를 신중하게 再檢討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간단하다. 지금 우리 社會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마음의 자세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大學에서도 大學이란 무엇하는 곳이고 大學에는 왜 다니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大學人답게 행동하는 것이냐에 대한 대체의 합의나 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마저 포기되어진 상태다. 高位 政策決定者에서부터 하루 하루 막벌이로 살아가는 힘없는 市民에 이르기까지, 또한, 學生대도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시피한 大學當局에서부터 卒業定員制에 얽매어 절수에

\* 이 글은 정실분화연구원 정책과제연구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앞에 닥친 일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나 또는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따져볼 겨를이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람이 기계를 닮아가는 추세는 능률을 위해 일이 高度로 分業化되고 있는 현대 기술문명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속도가 전에 없이 극심하게 빨랐던 지난 10여년간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통합된 人格體로서의 구실을 하기 보다 技能人으로서 機械의 代役을 擔當하도록 강요당하다시피하는 추세가 특히 強하게 나타났다. 傳統的 社會構造가 崩壞되고 그것을 전제로 했던 生活態度나 價値觀이 도전을 받게 되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등의 삶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없는 포류물과 같이 社會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초현실주의적 분출구를 제시하는 집단에 가담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自由意志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사이비 宗教團體들이 범람하고 일부 젊은이들이 革命至上主義 의식구조에 빠져드는 현상들은 크게 보아 삶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合理的 답변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서 오는 반사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合理的 해결책의 가능성에 대해 절망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형이상학적 차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감을 물질적 현실과 결부시켜 느낀다. 그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등 언뜻 보기에 매우 사치스러운 듯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市民들이 분명한, 긍정적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치체제, 특히 民主主義 理念을 표방하는 정치체제의 성공여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척도가 국민의 支持에 있다고 볼 때 그러한 지지는 객관적 현실과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사이의 관계로써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객관적 현실이 국민들 스스로가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들이 느낄 때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政府는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잃는다.

국민들간에 價値觀에 있어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政府의 시책이 그러한 價値의 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政治體制는 成功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價値觀, 곧 文化와 歷史속에 깊숙히 깃들여진 삶에 대한 태도, 습성, 꿈 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政治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등 객관적 여건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국민의 意識속 깊이 담겨있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오랜 기간동안 그것을 抑壓하는 태가로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發展”은 政治的 결실을

가져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국민들이 추구하는 價値와 그들의 생활태도나 습성,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教育을 통해 그러한 모순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때도 있다. 政治教育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에도 人文學 研究 및 教育에 대한 反省이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理由 때문이다.

政治를 전문으로 다루는 政治學은 社會科學의 한 分野로서 정착한지가 오래되었고 政治에 관한 모든 문제는 社會科學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社會에서는 어느 틈에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政治란 人間이 하는 것이고 政治에서 人間이란 단지 客體가 아니고 主體임을 생각한다면 政治의 문제가 人文學의 도움없이 다루어질 수는 없음이 자명해진다. 人間이 人間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에 대한 解答의 可能性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人間이 自由意志를 가진, 따라서 道德的 책임을 져야하는 存在임을 확인하고 상기시켜주는 일은 바로 人文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人文學이 담당해야 되는 課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人文學 研究와 教育이 실제로 처해있는 現實은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편 의상 모든 학문분야를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세 領域으로 나누어볼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져온 지난 10여 년간에 가장 동원되어온 분야는 人文學이다. 그 重要性을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研究나 教育內容의 확충에 필요한 社會나 政府의 支援이 미약했기 때문에 人文學은 이 社會에서 담당해야 할 임무와 기능을 다할 수 없었고 研究의 進展을 통해 스스로의 重要性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人文學이 가지는 本來의 중요성과 現實的 賤待사이의 矛盾的 관계는 이 社會가 긴 歷史的 眼目에서 뿐 아니라 보다 짧은 政治的 見地에서도 우리해야 할 여러가지 현상들을 낳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例가 人文學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學生들 가운데에서 그것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일류대학들에서 反政府 學生運動에 가담하는 學生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삶에 관한 근본적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學問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學生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社會構造에 대해 否定的 結論을 내리고 改革아닌 革命을 표어로 하는 行動에 가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매우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첫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既存 政治나 社會體制가 人間이 人間답게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기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命題가 수립되려면 우선 人間이 人間답게 산다는 것이 20세기 말기에 살고 있는 우리 韓國人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가 밝혀져야 하며 既存體制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나오며 그 두 가지가 서로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져야 된다. 곧 가치, 규범, 구조 사이의 관계가 구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대한 대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人文學과 社會科學으로 나뉘어 있으나 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는, 文科로 통합되어 있는 모든 學門分野간의 협동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文科뿐 아니라 理科까지 포함한 基礎科學 전체의 동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두번째 가능성은 現實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學生들의 감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人文系列에 入學하는 학생들의 資質에 문제가 있는가? 그들이 받는 教育에 문제가 있는가? 人文分野에 종사하는 學者들의 力量이나 學問의 水準에 문제가 있는가? 또는 人文學의 性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프랑스의 哲學者 배이유가 솔직히 인정했듯이 生産이나 組織에 관한 한 人文學者는 기생충이다.<sup>1)</sup> 그렇다면 人文學에 종사하는 기생충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人文學 研究나 教育을 의면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이 두가지 가능성은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질곡에서의 탈피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현실성 있는 통합된 타계책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의문들이 실제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전망을 제시해주어야 할 임무를 띄고 있는 人文學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뿐더러 사실상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과연 人文學이 本質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고 있음을 말해준다. 大學레저론 또는 大學平準化論이 순간적으로나마 등장할 수 있는 것은 人文學 또는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을 포함하는 모든 基礎學問分野의 性格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한 이해부족과 그러한 이해부족에 자연히 수반되는 회의 및 적대감 때문이라 볼 수 있다.

人文學 研究와 人文教育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런 면에서 보면 人文學이 그 存在理由 자체를 사회적으로 재확인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에서의 人文學 教育 및 研究에 대한 反省 및 改善方案은 ① 人文學의 目的, 性格, 方法이 무엇인가에 관한 理論의 검토와 ② 現在 우리나라에서 人文教育과 人文學 研究가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진단과 원인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마련될 수 있다.

## II. 人文學 및 人文教育의 特性

### 가. 傳統의 人文教育 및 人文學

人文學(Humanities) 또는 人文學者(Humanist)의 의미란 한 半世紀 前만 해도 비교적 자명할 것 처럼 받아들여졌었다. Humanitas라는 말은 본래 키케로(Cicero)가 修辭學의 重要

1) Eric Weil, "Humanistic Studies: Their Object, Methods, and Meaning", *Theory in Humanistic Studies* (Daedalus, Spring, 1970), p. 238.

性을 역설하는 논설에서 使用했는데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뜻이었다. 그는 인간다움의 척도가 言語 使用能力에 있다고 보았다.<sup>2)</sup> 人文學者란 르네상스 時代에 그리스와 로마 등의 古典文學, 歷史 등을 연구하고 위대한 先賢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中世 기독교의 편협한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진정한 人間性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로이 정립하고 人間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하는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들 人文學者들은 본래의 意味로서의 哲學이 제기했던 삶에 관한 모든 의문들, 곧 善과 惡이 무엇이며, 自然은 무엇이고 國家는 무엇이고, 美는 무엇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古典을 연구하며 책을 통해 先賢들과 끊임없는 “對話”를 나누었다. 초기의 人文學者들은 文學者, 歷史學者, 또는 哲學者였을 뿐 아니라 政治學者, 數學者, 物理學者 까지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러한 傳統은 18세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關心事는 社會現象이나 自然現象 및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法則이 아니라 肉體와 精神을 겸비하고 있는 多樣的 個體로서의 人間이었으며 人間이 歷史적으로 이룩해 놓은 文化를 學習과 研究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 人間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곧 文化的 創造者로서의 人間이 人文學者들의 關心의 초점이었고 그 때문에 人文學은 文化科學(Kulturwissenschaft) 또는 精神科學(Geisteswissenschaft)이란 말과 서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sup>3)</sup>

西洋에서 教育이라면 그것은 人文教育을 뜻하였고 人文教育이란 무엇보다도 古典教育이었다. 그리스語와 라틴語의 습득은 “교육받은 이”의 필수조건이었고 그러한 言語媒體를 통해 古典을 공부했다. J.S. 밀이 3살 때 그리스語를 읽고 8살 때 라틴語를 읽고 번역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유럽의 文化傳統에서 비교적 일찍 獨立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美國에서도 하버드大學校 등 名門大의 졸업장이 英語로 써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에 들어서였다. 古典語에 대한 要求는 감축되었으나 人文教育에서 古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얼마나 큰가는 지금까지도 시카고大學, 컬럼비아大學 등에서 필수로 되어있는 人文學 강좌의 도서목록을 보면 알 수 있다.<sup>4)</sup>

2) 金麗壽, “人文科學의 理念”, 人文科學研究의 方向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開所紀念 學術심포지움 발표요지문, 1981년 10월 p. 2.

3) Ernst Cassirer, *The Logic of the Humanities*, trans. Clarence Smith Howe, New Haven, 1974, p. xiii.

4) Columbia大學의 人文學 강좌의 내용

#### 가) 西 洋

Homer: *Iliad*

Aeschylus: *Prometheus Bound; Oresteia*

Sophocles: *Antigone; Oedipus Rex; Philoctetes*

Euripides: *Medea; Hippolytus; Bacchae*

Aristophanes: *Clouds; Frogs*

Herodotus: *The Persian Wars* (selected books)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Plato: *Apology; Crito; Euthyphro; Symposium; Republic*

Aristotle: *Ethics; Poetics*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The Bible): Job  
 Virgil: *Aeneid*  
 Saint Augustine: *Confessions* (Books 1-10)  
 Dante: *Inferno*  
 Rabelais: *Gargantua and Pantagruel* (Books 1 and 2)  
 Montaigne: *Selected Essays*  
 Cervantes: *Don Quixote*  
 Shakespeare: *Henry IV; King Lear*  
 Milton: *Paradise Lost*  
 Spinoza: *Ethics* (Books 1-3)  
 Molière: *Misanthrope; Tartuffe; School for Wives*  
 Swift: *Gulliver's Travels*  
 Voltaire: *Candide; Zadig and Micromégas*  
 Goethe: *Faust (Part 1)*  
 Rousseau: *Confessions*  
 Lessing: *Laocöon*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Blake: *The Portable Blake*  
 Dostoevsky: *Crime and Punishment*  
 Shaw: *Man and Superman*

#### 4) 東洋

Readings: Near East and India

For general reference: *A Guide to Oriental Class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 《TOPICS AND READING ASSIGNMENTS:》

- I. A. *The Seven Odes*. Trans. by Arthur J. Arberry. New York: Macmillan, 1957. Poems, pp. 61-66, 83-89, 114-18, 142-47, 170-84, 204-9. For background, see pp. 13-22 and 249-54.
- B. *The Korean Interpreted*. Trans. by Arthur J. Arberry. New York: Macmillan, 1964. Suras 1, 2, 4, 9, 12, 16, 19, 23, 24, 33, 37, 49, 53, 56, 63, 68-114.
- II. A. Al-Hariri. *The Assemblies of Al-Hariri*. Trans. by T. Chenery and F. Steingass. London: Oriental Translation Fund, 1867~98. Preface and Assemblies 1, 2, 12, 23, 25, 31, 48-50.
- B. Avicenna. *Avicenna's Visionary Recital*. Trans. by Roger Trask from the French version of H. Corbin. New York: Pantheon Books, 1960.  
 (or) Attar. *The Conference of the Birds*. Trans. C.S. Nott. London: Routledge and K. Paul, 1961.
- III. A. Al-Ghazali. *Deliverance from Error, in the Faith and Practice of Al-Chazali*. Trans. by W. Montgomery Watts. London: Allen & Unwin, 1953.
- B. Averroes. *On the Harmony of Religion and Philosophy*. Trans. by George F. Hourani. London: Luzac & Co., 1961, pp. 45-81.
- IV. A. Ibn Khaldun.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Ed. and abridged by Daywood from the translation of Franz Rosenth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B. Rumi. *The Mystical Poems of Rumi*. Trans. by Arthur J. Arberr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8. Poems 1, 7, 12, 16, 20, 28, 36, 46, 50, 59, 68, 80, 85, 86, 90, 101, 112, 119, 129, 144, 151, 170, 180, 191.  
 Alternative Reading: Joseph Campbell, ed., *The Arabian Nights*. Viking Press.
- V. A. *Selections from the Vedic Hymns*. Trans. by E. Daniel Smith. Berkeley: McCutchan, 1968.

- B. Chandogya, Brihadaranyaka, and Katha Upanishads. In Robert E. Hume, trans. *The Thirteen Principal Upanishads*. Oxford, Galaxy Paperback, 1971.
- VI. A. *Buddhism in Translation*. Ed. by Henry C. Warren. New York: Atheneum, 1963, pp. 1-95.
- B. *Buddhist Suttas*. Trans. by T.W. Rhys Davids. New York: Dover, 1963, pp. 1-155. Suggested Reading: *The Buddhist Tradition*. Ed. by Win. Theodore de Bary et al. New York: Modern Library, 1969, pp. 3-72.
- VII. A. *Entering the Path of Enlightenment: The Bodhicaryavatara of the Buddhist Poet Santideva*. Trans. by Marion L. Matics. New York: Macmillan, 1970, pp. 143-232.
- B. *The Diamond Sutra*. In *Buddhist Wisdom Books*. Trans. by Edward Conze. London: Allen & Unwin, 1958, pp. 21-71. Suggested Reading: *The Buddhist Tradition*. pp. 72-122.
- VIII. A. *Mahabharata*. Trans. by Chakravarti V. Marasim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and/or) *The Mahabharata*. J.A.B. van Buitenen, trans. Vols. I and II. Chicago, 1973.
- B. *The Ramayana*. In *Ramayana and Mahabharata*. Trans. by C. Dutt. New York: Dutton Everyman, 1955, pp. 1-37, 54-65, 76-107, 117-52. (or) *Myths of the Hindus and Buddhists*. Ed. by Amanda Coomaraswamy Sr. Nivedita. Dover Paperback, n.d. Suggested Reading: R.K. Narayan. *Gods, Demons, and Others*. New York: Viking, 1967.
- IX. *The Bhagavad Gita*. Trans. by Franklin Edgerton. Torchbook, 1944.
- X. A. Kalidasa. *Shakuntala*. In *Shakuntala and Other Writings*. Trans. by Arthur W. Ryder. New York: Dutton Everyman, 1959, pp. 3-94.
- B. Shudraka. *The Little Clay Cart*. In *Two Plays of Ancient India*. Trans. by J.A.B. van Buiten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p. 47-180.
- XI. A. *A Sourcebook in Indian Philosophy*. Ed. by Sarupelli Radhakrishnan and Charles Moo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Read chapter 15 on Vedanta.
- B. "The Yoga Sutra." Trans. by Royal Weiler. Library Mimeograph.
- XII. A. Bhartrihari. *Bhartrihari: Poems*. Trans. by Barbara Stoler Mill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 B. Kalidasa. *The Cloud Messenger*. Trans. by F. and E. Edgert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4.
- C. *Praise of Krishna*. Trans. by Edward C. Dimock and Denise Levertov. New York: Doubleday Anchor, 1967. (or) *Love Song of the Dark Lord: Jayadeva's Gitagovinda*. Trans. by Barbara Stoler Mill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XIII. A. Tagor. *A Tagore Reader*. Ed. by A. Chakravarty. New York: Macmillan, 1961, pp. 45-97, 115-223, 291-375.
- B. Mohandas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oston: Beacon, 1968, part 1; part 2: chaps. 5, 11, 22; part 3: chaps. 5-8; part 4: chaps. 6-7, 19-20, 26-31; part 5: chaps. 12-14, 23-25; "Farewell."

#### Readings: China and Japan

For general reference:

*A Guide to Oriental Class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for additional translations, secondary readings, and suggested discussion topics).

*The Classic Chinese Novel*, by C.T. H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 (TOPICS AND READING ASSIGNMENTS)

- I. *The Analects of Confucius*, Arthur Waley (trans.). New York: Modern Library. Pb.
- II. *Mencius*, W.A.C. Dobson (tra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3, Pb.

- (or) *Mencius*, D.C. Lau (trans.), Baltimore: Penguin Classics, 1970.  
*Mo Tzu: Basic Writings*, Burton Wats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b. pp. 18-22, 34-83, 94-115.
- III. *The Way and Its Power*, Arthur Waley (trans.). New York: Macmillan, 1957, pp. 141-242.  
 (and/or) *Lao Tzu: Tao Te Ching*, D.C. Lau (trans.), Baltimore: Penguin Classics, 1963.  
*Chuang Tzu: Basic Writings*, Burton Wats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b.
- IV. *Hsun Tzu: Basic Writings*, Burton Wats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b.  
*Han Fei Tzu: Basic Writings*, Burton Wats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b. pp. 16-48, 73-79, 96-129.
- V. *The Lotus Sutra* (abridged), W.E. Soothill (trans.), in *The Lotus of the Wonderfu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29, Chs. 1-4, 10-12, 16.  
*The Awakening of Faith*, Yoshito Haked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Philip Yampolsky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125-183.
- VI. *Monkey*, Arthur Waley (trans.). London: Allen & Unwin; New York: Grove Press, 1958.  
*Chinese Poems*, Arthur Waley (trans.). London: Allen & Unwin, 1964, Pb.  
 (or) *Poems of the Late T'ang*, A.G. Graham (trans.). Baltimore: Penguin Classics, 1965.  
 (or) *Su Tung-p'o*, Burton Wats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or) "Chinese Poems." Library Mimeograph.
- VII.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Wing-tsit Chan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388-691.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Wing-tsit C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123-53, 289-308.  
*Instructions for Practical Learning*, Wing-tsit C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p. 117-24, 271-80, 298-306.  
 Substitute: *Records of the Historian*, San-ma Ch'ieu (trans. by Burton Wat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b.
- VIII.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C.C. Wang (trans.). New York: Doubleday Anchor, 1958, Pb.  
 (or)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F.I. McHugh (trans.). New York: Pantheon Books, 1958.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H.I. Hsiung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 IX. *The Travels of Lao Ts'an*, Harold Shadick (tra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2, Pb.  
 Substitute: "Buddhism in Japan" Wm. Theodore de Bary (ed.), in *The Buddhist Tradition*. New York: Modern Library, 1968, pp. 255-398.
- X. *The Tale of Genji*, Murasaki Shikibu (trans. by Arthur Waley). New York: Modern Library Giant, n.d. pp. 3-357 (and pp. 747-1135).
- XI. *The Pillow Book of Sei Shonagon*, Ivan Morris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An Account of my Hut," Kamo no Chomei (Donald Keene, trans.) in *Anthology of Japanese Literature*, Donald Keene (ed.). New York: Grove Press, 1965, Pb.  
*Essays in Idleness: The Tsuruzuregusa of Kenko*, Donald Keene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Japanese poetry in Keene *Anthology*.
- XII. *20 Plays of the No Theater*, Donald Keene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b.



人文學이란 말은 西洋에서 由來되었고 우리의 現行教育制度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 계승받지된 결과이기보다는 西洋의 制度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學問과 教育傳統을 더듬어 올라가보아도 그것은 根本 精神에 있어 西洋의 人文主義傳統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教育이나 學問의 目的이 人間을 人間답게 되게 하자는 데 있고 사람됨이 知識의 追求에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는 孔子가 누구보다도 分明했다. “弟子，入則考，出則弟，謹而信，汎愛衆，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論語 第六章) “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主忠信，無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論語 第八章).

學問의 方法도 古典의 탐독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특히 儒學중에서도 朱子學의 영향이 강했던 朝鮮時代에는 儒敎의 古典만이 지나치게 중요시된 나머지 교육내용이나 學問研究에 다양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建國初에 제정된 成均館의 學令 가운데 讀書에 관한 부분을 보면 “먼저 글 뜻을 명백히 하고 응용에 통달할 것, 한갓 章句에 얽매어 文義를 牽制하지 말 것, 늘 四書·五經과 諸史等書를 읽을 것, 莊·老·佛經·雜流·百家·子集을 읽지 말 것, 위반하는 자는 벌할”이라 되어있다.<sup>5)</sup> 科學의 수험 과목으로도 四書·五經이 핵심을 이루었고, 그밖에 小學, 家禮, 古時銘 등이 첨가되었다. 李珣같은 大學者도 靑少年의 教育을 위해 쓴 學校規範(1582)에서 “독서의 차례는 먼저 小學으로 근본을 복돋우고, 다음에 大學과 近思錄으로 규모를 정하고, 다음에 論, 孟, 中庸, 五經을 읽고, 사이에 史記와 先賢의 性理書로 意趣를 넓히고 識見을 精緻하며 聖人의 서적이 아니거든 읽지 말고, 부익한 글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古典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傳統의 人文敎育이 가지는 利點은 명백하다. 그것은 敎育받은 계층, 곧 그 社會의 政治的, 文化的 指導者가 될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知的 基盤과 價値觀의 형성을 가능케 하며 文化的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知識層이 공통된 價値觀과 文化的 基盤을 가진다는 것은 한 社會가 同質性을 유지하고 政治的 안정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상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권위주의적 구조를 가진 社會에서는 카톨릭敎會같은 宗教集團이나 朝鮮王朝 같은 世俗國家에서나를 막론하고 權力構造 上部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특정한 文獻들의 탐독을 골자로 하는 古典의 人文敎育이 가지는 한계 또한 명확

An Introduction to Haiku, H. Henderson, New York: Doubleday Anchor, 1958, pp. 15-51.  
“The Narrow Road to Oku,” Matsuo Basho (Donald Keene, trans.) in *Anthology*, pp. 363-85.

XIII. *Four Major Plays of Chikamatsu*, Donald Keene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b.

*Five Women Who Loved Love*, Iharu Saikaku (Wm. Theodore de Bary, trans.), Rutland, Vt.: Charles E. Tuttle, 1965, Pb.

(or) *Life of an Amorous Woman*, Ivan Morris (trans.), New York: New Directions, 1967.

5) 韓基彦, 韓國敎育史, 博英社, 1971, p. 106.

6) 위책, p. 223.

하다. 그러한 古典들이 비교적 가까운 時代에 속하는 것이라 해도, 急變하는 産業文明 시대의 인간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책들을 읽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現象적인 것과 本質적인 것을 구별하여 現代인에게도 필요한 知慧를 얻어내는 일이란 상당한 精力과 시간의 투자 및 정신적 수련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注目할만한 것은 古典的 人文教育이 가지는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學問의 分業化와 專門化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던 西洋에서는 그러한 式의 人文教育의 傳統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名門大學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東洋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學問의 分業化와 專門化도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에 傳統的 人文教育에도 완전한 단절이 오고 말았다. 開港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教育이나 學問이 시대를 앞지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시대적 동요에 상관없이 삶의 原則에 관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古典的 傳統을 지키기를 고집해 오지도 못했으며, 현실과의 타협을 하기에도 힘겨워하는 사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傳統과는 거리가 먼 異質의 教育制度 아래에서 教育받고 學問의 수련을 쌓아온 人文學者들이 우리의 民族傳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要求를 직면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要求에 同調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民族傳統의 문제가 지금 大學生들 사이에서 항상 民衆文化와 결부되어 이야기 되지, 教育이나 學問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人文學에 종사한다는 모든 사람에게 큰 挑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高級文化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學問이나 教育이 民衆文化와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傳統에 대한 우리의 概念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고 그것은 우리의 人文學과 人文科學의 취약성을 드러내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우리의 過去의 유산 가운데에서 비려야 할 것과 보존해야 할 것을 가려내고, 歷史의 變化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文化傳統의 맥을 올바르게 짚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課業에서 주역을 담당해야 할 人文學과 人文教育의 可能性과 限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 나) 人文科學의 特性과 限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人文學이란 원래 醫學이나 法學 등 특수技能分野를 제외한 基礎學門分野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본래의 의미로의 哲學(Philosophia)의 계승자였으며 또한 人類歷史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探究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 “歷史的” 學問이었다. 곧 歷史現象으로서의 모든 것은 音樂이나 美術에서 民俗, 思想 그리고 自然現象에 이르기까지 人文學者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自然科學이 分立해 나갔고, 그후 또한 社會科學의 여러 分野가 독립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 人文學은 哲學, 歷史學, 文學 등 몇개의 分野로 위축당하는 처지에

아르게 되었다. 最近에는 심지어 歷史學에 관해서도 그것이 社會科學이나 人文學이나 하는 논란이 일고 있고, 自然科學의 母胎였으면서도 “科學”이 되기를 拒否해온 哲學의 한 구석에서도 科學化의 조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人文學과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은 研究의 對象을 달리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人文學者들의 관심의 對象은 歷史와 文化속에 비추어진, 個別的이고 예측불가능한 人間됨에 비해 社會學者의 관심은 그러한 人間들의 삶과 行動을 규정짓는 社會構造에 있고 自然科學자들의 관심의 대상은 그러한 個別的 또는 社會的 삶의 테두리 또는 바탕이 되고 있는 自然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區分은 곧 反論에 부딪힌다. 社會科學자들의 관심의 초점도 人間됨은 人文學者나 마찬가지로 人文學者라고 해서 自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세 분야, 또는 그 속에 포함되어있는 보다 細分된 學問分野 사이의 구분은 탐구의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대상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직접적 결과가 무엇이며 그러한 대상에 접근하는 方法이 무엇인가라는 견지에서 다시 시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가지 例로 우리는 植物學자가 아름다운 꽃말을 보기도 감탄사를 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文學을 한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치면서도 조그마한 흥취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좀 失望할지도 모른다. 또한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해부학자의 눈은 철학자의 눈과는 전혀 다르다. 해부학자에게 그때의 인간은 自然現象의 일부이지만 人文學者에게는 그의 意識世界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가 느낄 수 있는 人間的 共感이 그의 學問의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物質과 組織에의 집착이 더욱 더 강해져가고 있는 現代 技術文明 社會의 사람들은, 文學이나 歷史등에 관한 조예를 자랑하기는 하되 꼭 必要한 것은 아닌 精神의 사치즘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히 편견이지만 그러한 편견에는 전혀 根據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人文學者들이 그들의 學問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研究對象이 되는 문화 현상에 관한 知識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감상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人文學者들이 目標로 하는 人間에 관한 理解란 단순한 시술, 분류, 집합등의 知的 作業뿐이 아니라 體驗과 直觀까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理解이다.<sup>7)</sup> 그래서 人文學者들의 學問은 남을 위해 남에게 傳達될 수 있는 知識을 生産하는 이외에 그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體驗을 수반한다. 그것은 自然科學자들이나 社會科學자들이 못가지는 사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體驗은 知的 作業 그 自體가 기저다 주는 충족감, 곧 모든 면밀하고 정력적인 知的 作業이 完成될때 어떤 學問分野에서나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성취의 희열과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7) Morton W. Bloomfield, "The Two Cognitive Dimensions of the Humanities", *Daedalus*, Spring, 1970, p. 258.

하지만 人文學의 性格에 그런 “사치성”이 깃들었다는 사실은 社會的으로 볼 때 그것을 渡外視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하는 중요한 理由가 된다. 바로 精神的 富의 創造 또는 生産이 人文學의 發達에서 거두어지는 결실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人文學은 새로운 精神的 富나 價値를 創造하거나 物體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生産해 내는 것은 아니다. 論理的 作業을 통해 없던 것을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文學者들은 이미 人類가 이루어 놓은 業積들 속에 숨겨져 있는 智慧나 價値들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그것이 現代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속에서 다시 確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媒介의 역할을 한다. 곧 그들이 없다면 人類가 또는 어떤 民族이 이미 이루어 놓았던 文化는 다시 망각의 갯더미 속에 파묻힐 것이고 歷史의 發展이란 생각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人文學者가 目標로 하는 理解는 研究對象에 대한 局外者로서의 知識이 아니고 對象과의 관계, 곧 참여와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理解임을 이야기 했다. 셰스피어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셰스피어의 作品을 직접 읽지 않고는 그의 作品을 理解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作品을 읽고난 사람이 별 생각없이 이야기하는 感想談을 잘못된 것이라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人文學의 結晶은 研究對象에 對한 研究者의 情意的 關係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人文學者들의 課題속에는 文化遺産 그 자체에 대한 해명 이외에도 人文學者가 떠러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人間들의 價値에 대한 感受性을 개발하는 作業이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그 價値가 道德的 價値이건, 知的 價値이건, 審美的 價値이건 그 價値를 價値로서 인정할 줄 아는 人間の 감수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 價値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한 感受性이란 價値에 대한 知識과는 다르다. 知, 德, 美등에 관한 感受性은 知識에 의해 도움을 받지만 知識 그 자체가 感受性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感受性, 곧 行動意志와 連結되는 情意的 理解란 論理的 思考가 아니라 體驗과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體驗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진한 認知的 행위로서만은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人文學의 이러한 特性에 관한 理解의 결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人文教育의 方法이 根本的으로 잘못되어 왔다 볼 수 있다. 國民學校에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實施되고 있는 道義教育 및 國民倫理教育은 人文教育의 한 部分이라고 볼 수 있다. 眞, 善, 美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가지 價値들 중에서 善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道義教育이요 또한 政治教育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教育方法에서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은 知識으로만은 개발될 수 없는 價値에 관한 感受性을 知識으로만 注入시키고자 했다는 점이다. 知的 體界로서도 道義教育이나 國民倫理教育의 교과내용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이다.

#### 다. 人文學의 方法

人文學者들이 文化現象에 대해 추구하는 理解는 合理的 思考뿐 아니라 體驗 또는 直觀등을 必要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人文學의 課題가운데에는 價値를 發見 또는 保全하고 價値에 관한 感受性을 계발하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도 지적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곧 심각한 方法論的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論理的 思考뿐 아니라 學者 自身의 參與를 전제로 한다면 人文學에서 추구하는 理解란 결코 主觀的 性格을 脫避할 수 없지 않은가? 客觀的 合理性의 法則이 認定되지 않고 學問이 성립될 수 있는가? 知識과 價値와 의 關係는 어떤 것인가? 歷史的 眞實과 歷史的 虛偽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며 高尚한 취향과 低俗한 취미를 판가름 할 기준이 있는가? 方法論上의 엄격성, 또는 統一性이 없다는 것은 人文學이 항상 안고 있는 고민이고 人文學을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과 對等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무기가 된다. 그리고 筆者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人文科學이라는 표현 대신에 人文學이라는 用語로 고집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古典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읽어보면 人間의 삶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이미 古代 中國이나 그리이스, 히브리 의 사상가들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그것들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답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임을 알게된다. 자기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나 사람이나 진실, 정의등이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강조되지 않은 문화가 없다. 그러나 東西洋의 文化發展 과정에서의 큰 차이는 東洋에서는 그러한 價値들을 認知하는 方法에 대한 考慮가 거의 동한시 되었던 반면에 西洋에서는 특히 近代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러한 認識論이 哲學의 중심과제로 다루어지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自然科學의 도전을 받았을때 東西洋의 人文主義 傳統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西洋에서는 전에는 理性의 領域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것까지도 合理主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설명하고 人文學의 方法을 科學化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반면에 東洋에서는 人文主義가 非合理主義를 原則으로 내세워 그 속으로 은거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理性에 反해 直觀을 내세우고 認知에 反해 體得을 내세우고 하는 등의 주장이 모두 그에 속한다.

그 결과는 西洋의 人文主義傳統에 對應할만한 東洋의 人文主義傳統의 수립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西洋의 科學主義 앞에서의 東洋의 人文主義 傳統의 굴복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合理的 方法論의 미움을 그 傳統의 特性으로 밀어 버리는 우매하고 책임회피적 태도가 결국 西洋의 知的 文化에 의한 東洋文化의 압도를 가져온 것이었다. 우리의 大學이 成均館의 후속이기보다는 西洋 사람들이 새운 學堂의 成長할 결과라는 것이 그러한 패배의 단적 표현이다. 西洋의 科學主義 앞에서의 東洋의 人文主義 傳統의 패배라는 것과 관련하여 불 배 儒敎가 構造主義라고 하는 레비·스트로스의 말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西洋의

合理主義 傳統은 우리가 本質的으로 非合理的인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의 傳統속에서 까지도 合理的으로 설명될 수 있는 構造를 發見하고 있는 것이다.

東洋의 人文主義 전통은 “무엇이 옳은가?”만을 이야기해 왔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어떻게 아는가” “왜 옳은가?”라는 質問에 答하는 일은 등한시해왔기 때문에 人間이 直面하는 社會現實이 급변함에 따라 “무엇이 옳은가”를 가릴 수 있는 힘을 상실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人文教育에서 매우 重要的 課題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어떻게 아는가”하는 능력, 곧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大學에서 이야기되어온 人文學이란 거의 전적으로 西歐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樹立해야 할 人文學 및 人文教育의 傳統은 東西洋의 것 전부와 우리 固有의 것을 통합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傳統을 樹立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분간 西歐의 合理主義傳統을 바탕으로 하여 발달한 方法論에 依存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合理主義를 전적으로 否定하는 “非合理的” 方法論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人文學의 方法論에 관한 論議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近代, 특히 19세기 末 以來 西洋思想史의 主流을 이루어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것이므로 그것을 모두 요약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人文學이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는 課題와 결부하여 몇가지 중요한 方法論의 특색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첫째, 人文學은 다른 學問分野들이나 마찬가지로 合理性의 原則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수립되지만 人文學의 內容構成은 순전히 合理的 思考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人文學의 出發點은 歷史的으로 주어진 事實에 대한 認定과 究明에 있으며 自然科學에서 볼 수 있는 實驗的 방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數學의 公理같은 명료함이나 實驗을 통한 確認이 人文學에서는 不可能하며 人文學에서 다루어지는 事實들은 각기 그 自體로서 固有한 가치를 지닌다. 既存의 事實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엄격한 因果關係 法則의 發見을 전제로 하는 豫言이 人文學에서는 불가능함이 그 때문이다.

그러나 人文學에서도 虛偽는 虛偽로서 지적될 수 있고 어떤 主張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구별된다. 人文學者들이 다루는 文化的 事實이라는 것은 서로 獨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관계와 맥락속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構造를 파악하는 일은 合理的 尺度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合理的 尺度란 普遍性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人文學者들이 追求하는 目標은 知識이기보다는 理解이며 知識은 體驗과 함께 그 理解의 한 部分만을 구성한다. 곧 文學이나 歷史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文學作品이나 歷史場面に 關한 觀望자로서의 知識뿐 아니라 그 作品을 읽고 음미하며 그러한 歷史의 內容을 풀이되어 있는 情報를 수집하여 再構成하며 그 時代를 살던 사람들의 意識을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보는 體驗이다. 知識과 참여 어느 두 가지도 理解에서 없어서는 안될 要素이며

그 때문에 같은 作品을 되풀이 하여 研究하고 각 時代마다 자기들의 歷史를 새로 쓰게 되는 것이다.

셋째, 人文學이 제시하는 學問的 成果에는 항상 知識과 함께 價値評價가 포함되어 있다. 事實을 蒐集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人文學者는 社會科學者나 自然科學者와 마찬가지로 合理的 思考에 依存하지만 그가 공공연하게 또는 마음 속으로 던지는 質問들의 내용이나 의문의 濃度등에는 이미 그의 主觀的 價値判斷이 포함되어 있다. 곧 어떤 對象에 관해 質問을 던진다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한 照明이고 價値—否定的이든 肯定的이든—一認定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人文學者의 意識이나 價値觀이란 그가 붙담고 있는 社會와 文化의 歷史의 맥락 속에서 形成되는 것이다. 그 社會가 가지고 있는 삶에 관한 意識이 다시 人文學者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표출되는 것임으로 人文學者 個人의 價値評價의 참여나 개입이란 自然의 過程에 대한 人間의 개입같이 恣意的 性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배이유의 말을 빌린다면 人文學者는

“自己의 現在에 살아 남아 있는대로의 自己 傳統의 性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自己의 文化的 過去와 對話를 나누는 것이다. 그의 問題는 자기의 現在를 改造하는 일을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를 만들어 놓은 過去의 現在는 어떠했는가를 알므로써 지금의 現在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그는 자기 時代의 文化意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네째, 人文學은 藝術의 性格과 科學의 性格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人文學에서는 表現의 樣式이 內容이나 마찬가지로 重要하다. 심한 경우에는 表現樣式이 곧 內容이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言語를 使用하는 능력의 배양이 모든 人文教育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이야기의 形式을 떠난 歷史란 생각하기 어렵다. 平常時의 言語가 아닌 특수한 專門語의 남발을 人文學者들은 경계해야 되며 새로운 말을 使用할 때에는 그것이 다른 말로는 대치될 수 없다고 하는 뚜렷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

人文學이 가지는 藝術과 科學의 兩面的 성격은 그것의 특수한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人文學이 그 技能을 다 하려면 合理性에 대한 要求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以上の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그 兩面的 性格의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配合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어느 한가지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人文學에서는 개별적 사실만을 진부하게 나열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獨創的”이라는 구실아래 황당무계한 주장이 學問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가지가 다 人文學이 避해야 할 함정임은 勿論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人文學이 藝術이나 社會科學, 自然科學등 다른 分野들과의 密接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함이 안된다.

8) Weil, 앞글, p. 254.

## 라) 人文敎育과 政治敎育

이 論文의 主題는 “대학 사회와 人文科學 研究 및 敎育에 관한 方案”이지만 그것은 “한국 大學文化에 대한 反省과 政治敎育의 問題”라는 보다 큰 課題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敎育은 특히 近代 社會에서 國家가 關장하는 學校敎育은 넓은 의미로의 政治敎育의 성격울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전제가 이 課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前提를 위에서 시술한 人文學 및 人文敎育의 特殊性과 결부시켜 볼 때 人文學 및 人文敎育이 政治敎育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人文學은 民族傳統과 現代社會의 歷史的 요청에 다같이 부합되는 國家理念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責任을 진다. 실제로 그러한 國家理念이란 이미 憲法에 못박혀 있지만 그것을 正립하고 직결하게 표현하는 課題는 憲法學者들 뿐이 아니고 人文學者와 社會科學者들이 같이 짊어졌어야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호되어야 할 民族傳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歷史的 현실을 진단하는 모든 작업이 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國家理念이 무엇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價値概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人文敎育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둘째, 人文學은 그러한 國家理念이나 價値들이 왜 수호되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설명이 궁핍할 경우에는 그러한 國家理念이나 價値觀에 관한 敎育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기계적 주입식 訓練이 통용되지 않고 비판적 思考를 통하여 敎育이 이루어져야 하는 大學에서는 더욱 그렇다.

셋째로, 人文學과 人文敎育이 다른 學問分野와는 달리 독특하게 政治敎育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 상황에 직면한 人間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한 理念과 價値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事例를 통해 보여줌으로써이다. 自由나 主體性이 必要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自由를 위하여 主體性을 살리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이다.

이 세가지로 人文敎育의 과제가 끝나고 그 機能이 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行動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政治敎育에 대한 人文敎育의 接近方法이 여기서 機械的 洗腦나 群衆心理에의 호소, 強壓的 動員등의 方法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人文敎育에서는 認知的 측면 못지 않게 感性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傳統的 人文敎育 교과과정에는 藝術과 體育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政治教育에 대한 人文學的 接近이야말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Ⅲ. 人文學研究와 人文教育의 現況

#### 가) 大學 및 教育 전반의 문제

우리나라의 大學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대개가 어느 특정한 학문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教育財政의 궁핍, 學文의 自由나 大學의 自律性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 教育需要의 量的 팽창과 그에 따르는 教育의 質的 低下의 우려, 學生運動의 과격화, 教授와 研究要員의 절대부족, 教育行政體制의 非能率性 내지 逆機能的 영향, 大學入學 以前 教育의 質的 저하 및 新入生選拔制度나 卒業定員制等 制度的 결함에서 오는 타격등은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어느 分野에나를 막론하고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금 많은 大學들은 심각한 質的 低下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知的, 精神的 共同體로서의 해체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우리民族은 傳統的으로 "배워야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없는 歷史的 여건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世界 어느 民族보다도 높은 教育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우리의 國家政策의 우선순위는 그러한 教育熱에 대한 質的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 지지는 못했다. 國家政策上의 실질적 우선순위는 安保, 經濟發展, 教育이었으며 "教育立國"이라는 理想은 初等教育의 의무화라고 하는 數量的 표현을 확보하는 이외에 高等教育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설속없는 美辭麗句에 그치고 마는 느낌이 많았다. 教育이 國家安保와 經濟發展의 길잡이기보다는, 한낱 道具로 간주되는 가운데서 文教政策은 民族의 百年大計라는 긴 안목에서 수립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나가지 못하고 安保와 經濟發展이라는 可變性이 심한 중심과제에 받을 마추어 나가는 식의 졸속한 改革主義에 젖어들었던 것이다.

60年代와 70年代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文敎부와 教育學 專門家들의 活動이 活發했음에도 불구하고 教育分野는 經濟나 國防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침체되어 간 사실의 해명은 이러한 構造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國家政策에 있어서의 安保, 經濟, 教育의 우선순위의 고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 세가지 받침대 중에서 教育의 심한 不具狀態를 초래한 것이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教育供給과 教育需要사이 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이다. 文敎부의 적극적 관할하에서 마련되고 있는 教育機會나 教育의 質은 國家의 安保體制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며 經濟發展을 계속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서도, 심각한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으며 教育에 대한 國民의 慾求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不足하다. 그 뿐더러 자기들이 원하는 水準과 質의 教育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教育費를 부담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學校教育을 통해 자기들의 教育慾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 않다. 이적도 根本的으로는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있는 課外授業이나 補充授業에 대한 慾求, 自費海外留學生의 증가추세, 大學生들의 소요, 이런 모든 문제들도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教育이, 특히 高等教育과 學問研究가 이처럼 전반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配慮를 國家政策上의 우선순위결정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安保나 經濟發展과 직접적 관련이 가장 적은 듯이 보이는 人文分野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人文教育이나 人文學 研究는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人間을 人間답게 만들고 人間다운 삶의 궁극적 표현이요, 목표라 할 수 있는 文化的 價値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展望을 제시하고, 批判的 思考能力을 배양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지 人間을 이념한 目的을 위한 道具로서 訓練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人文學 研究와 人文教育이 특별히 적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나) 人文學과 人文教育의 필요성 및 性格에 대한 認識不足

우리는 傳統的으로 物質보다는 精神을 중요시하는 民族이며 그러한 文化圈에 속하고 있음을 자랑해 왔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입으로는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現實이 아니라 함이 國家政策의 方向이나 社會의 反應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大學에 入學하는 學生들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보인다.

우선 國家政策이 經濟發展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들에 대한 重點支援이라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왔다. 人文學이나 社會科學보다는 自然科學, 自然科學內에서도 기초분야 보다는 應用分野가 강조되었고 科學技術廳의 部處로서의 독립 및 그 산하기관으로서의 科學技術研究所 및 科學院의 創設은 그러한 政策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1963년과 1978년의 문교부 통계를 비교해 보면 大學에 재학하는 人文學系 학생수는 1963년의 99.1%로 오히려 줄었던 반면에 社會科學은 151%로, 理學系는 275.4%, 工學系는 477.0%로 자기 늘어났다. 大學院 재적생의 人文·社會·理學, 工學별 증가비율은 312.9%/645.5%/543.%/1692.7%이다.<sup>9)</sup> 1975년 유네스코調查에 의하면 韓國, 美國, 英國,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교해서 高等教育을 받는 학생중에 人文系 전공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7.9%로 어느나라 보다는 가장 낮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13.9%, 13.8%와 대조되었으며 그學徒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 높았다.<sup>10)</sup> 1972년에서 1979년사이 助教이상 教授人員數의 증가추세를 보아도 人文學系는 145.5%, 自然科學系는 240.9%이고, 전체 教授중에서 人文, 社會, 理學, 工學 분야의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의 9.1%/15.3%/10.9%/11.3%에서 1979년의

9) 金鍾喆, 韓國高等教育研究, 培英社, 1979, pp. 840-41.

10) 위책, pp. 872-3.

7.1%/13.2%/9.5%/20.7%로 변했다.<sup>11)</sup>

이러한 量的 集計로 보아도 經濟發展이 강조되어온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人文學 분야가 심히 위축당해 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量的 위축은 人文學 專攻者의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 단순한 統計의 사실에 그치지 않고 社會 전체의 精神的 분위기의 큰 變化를 동반하는 質的 低下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人文學이나 人文教育에 관한 質的 向上이나 健全한 知的, 精神的 분위기의 固生은 學生이나 研究人員, 研究施設의 數量的 增加만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지금 이 時點에서 우리의 人文學과 人文教育이 안고있는 특별한 고민이 있다. 그때문에 예를 들어 1980년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人文系列 定員과 定員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히 환영만은 할 수 없는 教育的, 政治的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經濟發展과 科學教育에 대한 執着은 불가피하게 서로 연관된 것으로서 그러한 政策은 어느 時點까지는 이 두가지 사이에 상호상승의 역학관계를 남게 되고 또한 社會 전체의 精神 風土에 영향을 미친다.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科學技術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그 계층의 취업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많은, 그리고 우수한 人材가 그 쪽에 모이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最低生計에 대한 보장이 취업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는 社會에서는 大學에 進學하는데 있어서도 就業可能性에 대한 고려가 個人의 趣向이나 그밖의 다른 要素들에 대한 고려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선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때문에 긴 眼目으로 본 國家의 발전과 民族의 번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學問分野의 均衡유지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制度的 장치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國民 개개인, 또는 社會組織體들의 기호와 판단에 맡겨질 일은 아니다.

그런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經濟開發政策, 文教政策, 大學이 배출하는 人材를 고용하는 기업체들의 고용방침이 모두 한결같이 人文學 專攻者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쪽으로 흘렀다. 政府는 人力需給計劃을 마련하는 데에서나 研究를 지원하는 데에서나 經濟發展과 관계해서 직접 눈에 보이는 效果를 나타내는 分野에만 重點을 두는 方針을 계속했고 企業體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긴 眼目으로 사람의 人間的 資質을 함축적으로 평가하는 고용정책보다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專門知識이나 技術만을 요구하는 方針을 썼기때문에 專攻別 차별이 심했다. 人文系 卒業生들은 英文科등 外國語 知識과 관계되는 전공분야를 빼 놓고는 취직시험에 應할 자격조차 못 가지는 실태였으며 또 다른 한편, 人文分野 專攻學生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敎職이나 研究職으로 진출할 기회도 막혔다. 대부분의 人文學 분야에서는 1980년에 감격스런 大學定員의 증원이 있기 전까지는 大學의 專任자리를

11) 문교부 통계연보 1972, pp. 572-3.  
문교부 통계연보 1979, pp. 544-545.

일으려던 30代 後半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文教政策 또한 人文學 分野가 위축당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各學問分野의 단절없는 育成을 위한 특별 支援策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實驗大學運營支針”등 우리의 社會的 與件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改革案을 實驗도 거치지 않은 채 각 大學에 적용시킴으로써 實用性이 없다고 간주되는 學問分野들은 新入生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더욱 零細化되도록 방치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創設은 物質主義가 만연되는 사회풍조에 제동을 걸고 人文學 分野에 活氣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과감한 試圖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支援은 國學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또한 그 기관이 창설될 당시의 경직된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官學育成的의 의도하에서 수립되었고, 운영된다는 의혹을 學者들 사이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人文學 및 人文教育 一般에 活氣를 불어넣는 데에는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大學은 아직도 자극히 좁은 문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現實的으로 人氣가 없는 人文系列이라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을 염려는 없다. 그러나 그 系列에 들어온 학생들의 진학동기를 알아보면 人文學의 전망이 결코 밝지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大의 경우 人文大는 醫大, 法大, 社會大 다음으로는 入學成績이 우수한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들 新入生들의 高校內申調書를 보면 그들 대부분은 法科나 政治學科가 원래 지방인데 성격에 자신이 없어 할 수 없이 人文大로 온 것임을 알 수 있으며 面接에서도 어떤 學生들은 英文科와 獨文科에 가려는 것이 外務考試에 필요한 外國語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라고 솔직히 이야기한다. 이러한 동기와 의식을 가지고 그 學問分野에 발을 들여 놓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人文學者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大學의 사정들도 비슷하여 人文系列과 語文系列의 학생들에게 專攻에 대한 自律選擇의 權利가 주어지는 大學에서는 취직 전망이 가장 좋은 英語英文科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經濟發展과 技術者 확보에만 중점을 두는 政府의 施策이나 社會風潮는 결국 젊은이들에게도 그것을 기초로 한 價值觀를 심어주었고 그것에 맞게 자기들의 進路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物質이나 權力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人文學의 여러 分野란 가장 매력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反政府 데모에 가담하는 學生들 가운데 특히 人文大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現實主義的 慾求와, 몸담고 있는 專攻分野의 성격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다) 人文教育 內容의 貧困化

지난 20년간 우리의 大學教育에서는 두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듯한 추세가 나타났다. 하나는 敎養教育에 대한 強調이고 또 하나는 大學의 機能이 專門職業人이나 技術者 養成所의 機能과 혼돈되는 듯한 現象이다. 制度的으로 보아서는 前者, 곧 敎養教育에 대한 강조가

우세한 듯하다.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教養學部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면 7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온 實驗大學案의 중요한 골자는 專攻分野의 選擇을 大學入學 1년 혹은 2년 후로 미루어 學生들로 하여금 여러學問分野의 과목들을 섭렵해 보고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現實으로는 大學이 機能訓練所化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간 듯하다. 우선 學生이나 學父母들이 大學教育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知識人으로서 폭넓은 教養과 眼目을 갖추는 것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資格이었으며 또한 社會가 그들에게서 기대하는 것도, 新入社員 모집공고에 분명히 드러나듯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知識과 技術이지 教養을 갖춘 知識人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다.

大學이 大學으로의 機能을 다 하려면 大學은 學生들을 폭넓은 教養과 眼目을 갖춘 文化人으로 “教育”함과 동시에 어느 特定分野의 專門家로 “訓練”하는 일을 함께 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 두가지 일이 결코 서로 相反되거나 矛盾되는 일이 아니다. 화이트헤드의 말을 빌리자면,

“技術教育과 教養教育을 서로 相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教育이 없이 지질한 技術教育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技術教育이 아닌 教養教育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技術과 知的 展望을 함께 전해주지 않는 教育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12)</sup>

그런데 따로 우리나라의 大學에서는 教養教育과 專門教育이 마치 서로 相反되는 듯한 假定 아래에서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大學教育이 高等學校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專攻儻重을 원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일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文化人으로서의 初步的 教養도 갖추지 못한 學士, 碩士, 博士가 속출하고 있다는 批判의 소리가 大學 內에서 뿐 아니라 社會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둘다 근거가 없지 않은 批判이다. 분명히 大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것은 知識의 폭발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大學이 새로운 知識을 생산하고 흡수하고 전달하는 데에도 바쁜데 언제 教養과 眼目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태도, 곧 專門人은 特殊分野의 專門人으로서만 능력을 갖추면 되자 人間으로서 評價받는 것은 아니라는 主張이다. 專門知識人이기 때문에 生活 주변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모양이나 판단력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이미 大學에서 굳어진다면 진정한 專門家로서의 訓練이 이루어지는 大學院을 거치게 되면 이들은 人間을 위해 學問을 하는 人間이기 보다는 學問을 위해 學問을 하는 機械가 되어 그들의 學問이 人間에게 寶로운 방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으로 지금 大學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풍조는 生活에 직접 관여되는 문제의 解決에는 學問의 수련이 필요없으며 —學年 학생의 意見이나 政治學 教授의 見解나 현실정치 문제에 관한 한 동등한 比重을 가진다는 태도이다. 이 두가지 태도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12)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Humanities, p.66에서 재인용

전자는 일부 教授들 사이에서, 후자는 일부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서로 맥이 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大學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다시 大學의 現行 教養課程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것이 人間으로서의 教育과 專門家로서의 訓練을 동시에 이루는 효과를 가질 수 없게 짜여져 있고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의 教養課程에서 학생들은 國史, 國語, 國民倫理, 教練등 國定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外國語 각 분야에서 고루 한 과목씩을 擇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美國大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教養教育 교과과정 편성방식에 民族主體性을 강조하자는 政策的 要求가 가미되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는데 그 실질적 운영은 美國에서와는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教養課程의 강의는 어느 分野나를 막론하고 거의 전부가 “概論”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哲學概論”에서는 哲學을 가르키기 보다는 “哲學이 무엇인가?”를, “史學概論”에서는 歷史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아니라 “歷史學이란 무엇하는 학문인가?”를 이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人文學과 人文教育의 方法論의 특색인 個別的 事實과의 만남이라는 體驗을 통한 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 이론만을 배우며, 구체적 事例를 다루는 訓練을 통한 批判的 사고의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느 누구의 학설이 感情的 호소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것을 마치 眞理 그 자체인 양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송두리째 거부하게 된다. 곧 各 學問分野에서 필요한 共通된 初步的 知識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는 方法論의 체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教養科目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分野에 대한 知的 호기심을 자극해 주고 專攻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主題를 놓고 知的 對話가 이루어 질 수 있는 知的 共通基盤을 마련해 주는 대신 “수박 겉핥기”식의 과목이라는 빈축을 사게 되는 수가 많다.

教養科目의 內容이 빈곤해지는 원인 가운데에는 教養教育이나 人文教育의 취지나 방법에 대한 教授들의 물이해도 있지만 또한 대체로 이러한 科目들은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듣는 大單位 강의로 운영되며 학문적 조예가 깊은 노련한 교수보다는 時間講師에게 흔히 맡겨진다는 사실도 들 수 있다. 질의응답이나 토론의 기회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태는 新入生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몇 해 전보다도 더욱 惡化되었으며 앞으로는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教養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政治教育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러한 科目들이 新入生이 大學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科目임을 생각할 때 大學에 대해 그들이 가지게 되는 印象이나 기대는 거기에서 많이 左右된다. 教養教育의 內容이 그들의 知的 慾求를 充足시키기에 지나치게 비후할 때 그들은 자

求策을 찾게 되며 여기에서 理念씨콜들이 매우 비옥한 風土를 만나게 된다. 理想的으로는 학생들이 관심가지는 가장 중요한 社會問題, 人生問題 등이 教養科目들을 통해 강의실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學生들이 자기들의 問題에 대해 合理的 解決策을 찾을 수 있는 學問의 소양을 쌓도록 돕는데 教養科目들의 의의가 있다. 그러한 理想이나 현실적 요청이 현행 教科課程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두번째로 教養教育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大學人들간의 知的 共感帶의 조성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知的 多樣性은 大學의 生命이지만 그러한 多樣性이란 “大學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無識”이 무엇인가에 대한 共感帶가 形成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 될 수 있는 多樣性이다. 知識人들 사이에서 그러한 知的 共感帶가 조성이 안 된다면 社會 전체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는 물론 없으며,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共通된 기준이 存在하지 않는 社會는 이미 精神的 共同體라 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大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러한 精神的 共感帶의 弱화이다.

#### 라) 人文教育 및 人文學 研究에 대한 評價基準의 不在

教養教育이 大學社會의 知的 共感帶를 造成하는데 成功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한 人文學 分野 전체에 걸쳐 어떤 教育的 또는 學問的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함을 뜻한다. 人文學이란 여러 가지 個別 학문분야의 통합임으로 분야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方法論이나 評價基準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評價基準이란 보다 더 普編的, 常識的 의미에서의 評價基準이다. 가령 예를 들어 人文大學에 적을 둔 大學教授이면 적어도 어떠한 정도 冊이나 學術誌 짧은 읽었거나 읽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基準도 무너져 가고 있다.

人文分野에서 學術的 評價基準이 수립되지 않고 研究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직접 원인은 圖書館不在 상태이다. 우리는 지금 情報의 洪水時代에 살고 있지만 人文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관성 있게 어느程度的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도서관이 연구의 뒷받침을 할 수 있으려면 일반참고도서는 물론 각 분야별로 중요한 學術誌와 研究刊行物を 어느 수준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소장하고 있지는 못하나마 없이는 안될 기본 資料의 소재에 관한 情報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主題에 관한 研究도 우선은 圖書館에서 文獻조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상식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人文分野에서는 지금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실정이다. 學者 계기인이 직접 내게 外國으로부터 求할 수 있는 資料를 몇가지 求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研究의 근거를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人文分野에서는 아직도 우리 學界와 外國學界간의 벽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韓國에 직접 관계되는 主題를 다루

지 않는 學者로서 外國學界의 인정을 받으며 그들과 對等한 立場에서 學術交流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極히 드물다. 그리고 外國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매우 드문 편이어서 外國에 가서 필요한 研究를 하거나 資料를 입수해 오거나 하기도 어려운 實情이 계속된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人文學者들 間에서 人文學의 침체현상에 관한 비판의식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條件에서 活動하고 있는 自然科學者들이 자기분야에 對해 가지는 의식보다 높지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點이다.<sup>13)</sup> 아마 그것은 人文學의 性格이 主觀的 尺度의 개입의 여지를 自然科學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人文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韓國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人文學者들의 視野가 너무도 좁기 때문에 자기들의 學問分野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뒤져있다는데 대한 감각마저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진단도 할 수 있다. 人文學의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人文學者들의 견해가 社會科學者나 自然科學者들의 견해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다.<sup>14)</sup>

人文教育이나 人文學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要因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學問的 自由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이다. 이러한 제약은 政治와 社會의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社會科學 분야에 비하면 덜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개별적 사실에 對한 치밀한 분석을 통한 批判的 思考 능력의 배양과 理性과 感性에 대한 동시적 호소를 통한 行動意志의 연결을 特色으로 하는 人文教育이 받는 타격은 어느 의미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學問的 自由에 대한 제약이란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特定한 學問分野에 대한 구체적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생활주변의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마당에서는 知的 思考의 능력이나 道義的 또는 審美的 感受性이 모두 위축당하게 마련이다. 특정 道서가 禁書로 되어 있고 檢閱官의 눈을 의식하며 글을 써야 하는 사정 또한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런가하면 社會나 政治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 또한 人文學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의 學生運動은 反知性的, 反文化的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으며 人文學 專攻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듯 하면서도 실은 人文主義的 태도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知識人의 本分이 무엇인가에 대한 對話가 공허한 名分論의 대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최저한의 합의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大學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人文教育이나 人文學研究에 대한 평가기준의 不在와 아울러 언급되어야 할 것은 教育 및 學問의 質과 平等主義的 要求間의 절충의 문제이다. 教育機會의 平等한 保障이란 우리 社會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임에 틀림없으며 民衆에 대한 配慮와 關心, 그리고 理解의

13) 安濟市, 河英善, 韓國學問의 基礎分野 開發과 振興에 關한 調査研究, 大宇文化福祉財團 支援 研究結果報告書, 1981. 1. 15, p. 4.

14) 위글, p. 5.



必要性 또한 누구도 의면할 수 없다. 그러나 民衆에 대한 關心과 配慮가 그들에 對한 崇拜가 되고 大衆文化에 대한 理解가 高級文化에 대한 配慮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大學에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政策決定者들까지도 흔히 大學의 存在理由가 知的 엘리트를 배출함으로써 우리 社會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知識을 생산해내고 文化傳統을 수렴하며 수호해 나가는 데 있지 教育이라는 概念의 分配통로의 구실을 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잊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때문에 大學平準化에 대한 要求가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風土이다.

大學의 質에 대한 管理가 平等主義的 慾求에 대한 고려보다 등한시된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는 人文學의 領域에서 보면 大學다운 大學이 아직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圖書館 사정이나 研究室사정, 教授對 學生의 比率등으로 본다면 大學의 質은 20년 전보다도 훨씬 떨어진 點이 많다. 해방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國立서울大學에 美國史를 專攻하는 專任教授가 채용되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大學의 人文學 分野의 취약성을 무엇보다도 잘 들어내주는 事例라 할 수 있다. 人文學 分野 별 教授 人員의 分포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完成된 것이 없으며 지금 大宇文化福社財團의 支援아래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안다. 日本이나 美國과 같이 우리보다는 豊富한 教育財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研究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一流大學과 대중教育을 목표로 하는 尙書대학은 엄청난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 우리 設정에 적합한 大學育成政策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마) 그밖의 문제들

人文學과 人文教育에 관한 評價基準의 미흡과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各學問 분야간의 協동과 大學과 中高等學校 教育體制나 教育內容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點이다.

우선 大學과 中·高等學校의 關係를 생각해 볼 때 大學에서의 教育이나 研究가 大學入學 以前의 教育成果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짐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人間教育, 技術訓練, 人文學, 自然科學 어느 것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教育이나 學問의 성격이 短時間에 걸친 集中訓練의 성과가 그리 클 수 없는, 學習하는 경험 자체가 곧 教育임이 強調되어야 하는 人文分野에서는 더욱 질실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의 教育制度 아래서는 大學教育의 內容과 下級學校의 教育內容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 특히 大學別로 시행되는 入試가 폐지된 후에는 大學이 下級學校의 教育內容에 직접 影響을 미칠 수는 없게 되었다. 몇몇 大學教授들이 教科書 편찬에 참여하고 文敎部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應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 영향이란 큰 것이 못된다. 大學教授들은 新入生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그들이 大學에 들어온 다음에야 이렇듯이 짐작을 하게

되고 그들의 水準에 맞추어 자기의 講義案을 다시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大學이 中·高等學校를 이끌어가기보다는 大學이 下級學校의 水準에 발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現行 우리의 教育制度이다. 더구나 教師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師大 출신들이 敎職으로 진출하는 率이 아주 낮은 것을 생각하면 大學과 下級學校 사이의 연계성은 더욱 희박함을 알 수 있다.

大學과 高校사이에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大學 新入生들에게 여러가지 心理的, 知的 부담을 더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新入生 定員의 갑작스런 증가와 卒業定員制의 시행으로 매우 살벌해진 분위기 속에서 敎授와 개별적 접촉을 할 기회가 極히 제한된 그들에게 어떤 소속감과 신뢰감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體驗을 통한 教育이라는 人文敎育의 중요한 전제가 이미 여기에서 무너지는다.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나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學問分野간의 學際的 協동문제이다. 學問分野간의 區分은 分業의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고 區分 그 자체가 바람직할 것은 아니며 특히 大學이나 學科間的 행정상의 區分은 더더구나 敎育이나 學問의 發展이라는 전지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必要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大學의 敎育이나 研究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學問이나 科나 大學間에는 매우 두터운 장벽이 놓여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 政治나 敎育이나 모든 現實的 문제중에 學際的 協동없이 진정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협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大學의 行政構造가 짜여있고 敎授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協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

研究에서 敎育으로 눈을 돌리던 分野間的 그러한 共同作業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例를 들이 나찌즘에 관심을 가진 學生은 政治學 강의뿐 아니라 獨逸史, 獨文學강의를 듣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大學 新入生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民族主義나 民主主義등의 문제에 관해 여러 분야의 敎授들의 자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여 줄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學問間的 協同이 차치 잘못하면 “外形的” 협동이 될 염려가 있다는 點이다. 觀念의 벽을 뚫고 用語의 理解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狀況속에서의 學際的 協同이란 무의미하다.

人文分野뿐 아니라 다른 모든 分野에도 관계되는 일로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學問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行政官吏들에 의한 지나치게 세밀한 간섭이 敎育이나 研究에 미치는 폐단 문제다. 이것은 國立大學등 특히 國家의 財源에 의지하는 學術機關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바 비현실적인 劃一的인 研究費 支給기준, 研究期間, 成果報告의 形式등은 人的, 物的 資源의 심각한 낭비를 가져온다. 大學의 運營에 관해서 敎授會의 決議는 고사하고 討議機能조차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敎育과 研究 현장에서 생기는 절실한 要求가 研究 및 敎育 支援政策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 國立大學

의 敎授들은 敎授社會의 실정에 맞지 않는 처우를 감수해야 하며 도서관은 도서를 外國의 서적상을 통해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국내 서적상들에게 입찰을 시켜야 됴므로 新刊이 絶版되기 전에 구입할 길이 막힌다든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構造的 모순에서 나타나는 몇몇 事例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어느 面에서는 大學밖에 따로 存在하는 각종 研究機關들에 大學보다 研究를 위한 뒷받침을 더 잘 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大學을 內的으로 弱화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 IV. 人文學 硏究 및 人文敎育의 改善과 強化를 위한 提議

위에서 검토한 두 가지, 곧 人文學 및 人文敎育의 基本性格과 大學에서 人文分野가 처해 있는 現實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의 人文敎育 및 研究에는 改善과 強化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對策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人文學 및 人文敎育의 強化는 비단 學問 분야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나 知的 共同體로서의 大學의 본래 機能을 回復하고 強化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民族文化의 遺産과 傳統의 관리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되는 人文分野의 弱化는 곧 우리의 精神文化의 발달이 物質文明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精神的 共同體로서의 民族의 解體라는 무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질화되다시피한 大學生들의 데모나 社會에 팽배해 있는 심각한 不信風潮등을 통해 경계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참다운 民族의 共感帶의 조성을 촉진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人文學 및 人文分野의 育成 및 強化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對策이 요청된다.

**提議 1:** 人文學이나 人文敎育의 중요성을 大學에서 뿐 아니라 國家政策決定의 次元에서 認定하고 改善과 強化를 위한 支援을 한다.

人文學 分野는 그 성격상 物質的 生産성이 모든 價値의 평가 척도가 되고 있는 現代社會에서는 他 學問 분야와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그리고 社會의 自發的 支援을 통해 육성될 수는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科學的 知識과 技術의 계속적 발달을 전제로 하는 산업社會의 경제구조, 국제 경쟁에서 오는 압력, 대중 민주주의의 발달에서 오는 평등주의적 욕구, 절박한 사회문제에 대한 어대올로기적 집착 등이 모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基本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人文敎育과 人文學研究의 쇠퇴, 그리고 나아가서는 大學의 自律性의 약화를 초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美國같이 비교적 안정된 先進産業國家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적극적 對策이 계속 강구되고 있다. 특히 注目할 만한 일은 美國처럼 高等教育이나 研究가 대체로 私的 주도력에 맡겨지는 나라에서조차도 學生들의 현실참여가 가장 격렬한 형태로 표출되었던 1960년대 後半期와 1970년대 前半期를 겪고 난 후에는 美國의 知識 엘리트 養成의 대표적 기관인 절

럼비어나 하아바드 大學등이 人文教育 改善 方案을 마련하는데 앞장을 서는데 만족하지 않고 1978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人文教育 特別委員會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도 國家的 次元에서 對策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特別委員會의 설치가 필요하며 委員은 學界, 財界, 政界에서 고루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提案 2 :** 人文學과 人文教育에 대한 財政的 支援代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提案 1의 후속조치로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 方法으로는 새로운 基金이 어리울 때에는 既存의 연구지원 財團등에 人文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길도 있다. 支援방식 중 특히 바람직한 것은 젊은 학자들에게 外國에 유학하거나 혹은 1년 내지 半年에 걸친 研究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급과 같이 研究費가 生計補助費같이 쓰이는 대신 研究와 教授人員교육과 훈련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 長期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 提案 3 : 圖書施設 確充

人文學 發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研究에 도움이 될만한 內容을 갖춘 도서관을 全國에 하나라도 확보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명칭이 어떻든간에 우리나라의 中央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하는 일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定期刊行物과 기본도서를 갖추고 새로 發刊되는 책자를 신속하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 소장되어 있지 않으나 중요한 책에 관해서도 적어도 도서목록 카드를 비치하여 그런 책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각 主要 분야별로 司書를 두어 研究者에게 필요한 情報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研究結果가 널리 活用되고 또 評價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도서관을 통해서이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나라 人文學은 土產를 쌓아가기보다는 外國學界와의 단편적 접촉을 통해 겨우 맥을 유지하는 空轉만을 계속하여 불필요한 人力, 物力의 낭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提案 4 : 人文教育教科課程은 전반적으로 再構成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大學의 人文教育課程은 형식상으로는 여러차례의 改革을 거쳤으나 內容에 있어서는 30, 40여 년 전의 상태를 크게 못 벗어 나고 있다. 教科內容의 구성, 教授方法, 教科目的 배열, 다른 학문분야의 教科目과의 중첩이나 연계성 문제, 학생에게 부과되는 숙제의 양과 質등 모든 면에서 지금의 教科課程은 학생들의 知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음을 人文分野의 教授들이나 學生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다.<sup>16)</sup> 그러나 물론 이러한 改革이 수행되려면 충분한 制度的, 財政的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고 조급하지 않게 긴 안목으로 문제를 다루고 폭넓은 公開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大에서는 이미 몇 해 전에 教科課程 改訂策이 마련되었으나 널리 活用되고 있지 못한 것은 그러한 뒷받침이 없고 公開性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15)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Humanities,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0 참고.

16) 安濟市, 河英善, 앞글, p. 33.

있다.

提案 5: 教養教育에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人文教育 기초과정에서는 教科의 名稱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계 없이 다음의 요소들이 強調되고 가능하면 成績評價의 기준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자기의 의견을 우리 말과 글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우리 역사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理解
-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윤리 문제에 대한 감수성 및 분석, 판단 능력
-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관한 기본 지식 및 그것이 야기시키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식
- 예술을 감상할 줄 알고 작품에 대해 논평할 수 하는 능력

人文教育 강화와 책진을 위해 하이바드 大學校와 킬럼비아 大學校는 서로 대조되고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바드의 “核心教科課程”(Core Curriculum)은 그 이름과는 달리 어떤 核心的 公통과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數學, 自然科學, 文學, 道德哲學, 外國文化, 社會分析, 歷史學, 外國語, 藝術, 英語作文 10가지 중 적어도 7~8개 분야에서 核心科目으로 提供되고 있는 8~10개 중 1강좌를 택하는 일이다. 이 核心 科目들은 어느 것이나 그 分野에서 독특하게 要講되는 “理解方式”(mode of understanding)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考案되어 있으므로 教科의 구체적 내용은 學生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르다 해도 그 分野에 필요한 “理解方式”은 공통으로 배우게 된다. 하이바드가 知的 共同體로서 가지는 核(Core)은 하이바드의 학생이면 누구나 적어도 7~8개의 學問分野에 대해 共通된 “理解方式”을 가진다는 사실로서 形成되는 것이다.<sup>17)</sup>

킬럼비아大學은 시카고 大學이나 마찬가지로 偉大하다고 평가받는 古典 또는 現代作家나 思想家들의 저술을, 풀이쓰지 않은 原文의 형태로 매주 또는 2주마다 1권씩 읽게 되어 있는 “偉大한 著述”, “現代文明”, “人文學”등의 강좌를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요구한다. 하이바드와는 다른 方法으로 知的 共同體로서 결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sup>18)</sup> 전에는 西洋의 著作들만을 다루어 왔는데 最近에는 東洋의 古典들을 西洋思想家들과 함께, 또는 독립된 강좌로 다루고 있는 것이 最近에 이룩된 改革의 일부이나, 美國의 지식인들이 포용해야 하는 知的 세계의 지평선이 그만큼 확장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곧 人文教育 基干과정에 하이바드와는 역시 다른 方式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知識의 폭증과 급격한 社會變化에 대한 대책의 方法으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많다.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人文教育 核心

17) Harvard University, *Courses of Instruction, 1980~81*, Adele Simmons, “A Timid Reform, A Modest Advance”, *Dialogue*, Vol. 13, 1980, No. 1, p. 16.

18) *Tradition and Innovation: General Education and the Reintegration of the University*. A Columbia Repor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敎科課程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大學校의 事例가 다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原則도 없이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찾아 천방지축 헤매는 것은 안된다는 사실이다. 大學은 知的共同體로서의 分명한 기반과 기준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기반과 기준은 원칙이 分명한 敎科課程의 편성과 운영을 통해서만 이룩되고 유지될 수 있다.

提案 6 : 知的 共同體로서의 大學의 本分과 機能을 살리기 위해서는 敎授會議의 權威와 責任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大學의 敎授會議은 완전히 有名無實한 것이다. 敎科課程의 개편이나 효과적 운영은 敎授들의 積極적 참여와 지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밖에 大學의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것에 關係 敎授가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학생들에 對한 敎授의 權威가 서게 된다. 政治敎育도 기본적으로는 人間敎育이요 道義敎育인 이상 敎授의 專門家로서 뿐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權威가 樹立되지 않는 限 그가 무슨 科目의 강의를 하든 政治敎育의 效果를 기대할 수는 없다.

提案 7 : 大學卒業生을 기용하는 業體들이 人文學 專攻者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하고 필요하면 더욱 積極적 조치를 취한다.

人文學에 對한 素養은 사람의 平生동안 개인으로서의 삶을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專門職業人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도 없어서 안될 저력이 된다 함을 社會에 인식시키는 制度的 장치가 필요하다.

提案 8 :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분야의 學者들이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機會를 확장하고 그러한 協同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行政的 제약을 제거한다.

우리나라의 學術研究費, 특히 人文分野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政府나 政府산하 公共機關을 통해 지급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규정이 分野나 主題의 特性에 關係없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長時日을 요하는 學際的 共同研究계획등이 추진될 수 없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문제들은 그러한 共同研究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美國學術院이 발간하는 Daedalus誌 등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으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식의 진정한 공동연구는 치밀한 사전 계획, 여러차례에 걸친 공동 토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財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 참 고 도 서 목 록

金鍾喆, 韓國高等教育研究, 培英社, 1979

安濟甫, 河英善, 韓國學問의 基礎分野 開發과 振興에 關한 調查研究, 大宇文化福祉財團 支援 研究結果報告書, 1981.1.15

李奎浩, 우리 敎育의 革新과 展望, 培英社, 1975

- 韓基彥, 韓國教育史, 博英社, 1971
- 國民精神教育의 諸問題, 韓國教育開發院, 1976
- 國民教育憲章의 民族史의 基底, 韓國教育開發院, 1974
- 문교부 통계연보, 1972, 1979
- 서울대 통계연보, 1981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학사과정, 1976
- 서울대학교 기초과정 수강편람, 1981
-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Daedalus, Summer, 1969)
- Theory in Humanistic Studies* (Daedalus, Spring, 1970)
-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Humanities*, Univ. Cal. Press, Berkeley, 1980
- Tradition and Innovation: General Education and the Reintegration of the University*, A Columbia Repor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 What is an Educated Person? The Decade Ahead*, ed. Martin Kaplan, Praeger, 1980
- "The University and Society", *Dialogue*, Vol. 13, 1980, No. 1
- The Future System of Higher Education*, Report of the Hiroshima International Seminar o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Hiroshima University, 1977
- Cassirer, Ernst, *The Logic of the Humanities*, trans. Clarence Howe, New Haven, 1974.

## 《Abstract》

**Humanities in the University: A proposal for reexamination****by In-Ho Lee**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humanities have been badly neglected in the universities in Korea in recent decades. The effect is being felt in the wide-spreading mindlessness noticeable both within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in the society as a whole. Political education or ideological education, much talked about these days, is meaningless if not ground in the humanistic tradition. Yet there seems to be little awareness of the vital connection between the two.

The humanities were neglected because of the tremendous premium this country has been placing on the need for rapid economic growth. Any field not directly contributing to material production or social organization was bound to be relegated to the background. But the neglect is also attributable to a deplorable lack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nature of humanistic disciplines and education.

As a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reexamine the state of the humanities and general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ut in the necessary resources, both financial and human. In particular, it urges the need to revise the existing curricula at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the university and strengthen the library resources.